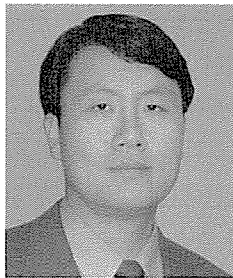


흡연과 청소년

남고 3년생 흡연율 日·美보다 크게 높아 세포 분열 왕성한 성장기여서 피해 심각



鄭裕錫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고교남 24.8%, 여 7.5%가 흡연자

최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이자 정치가였던 이주일씨의 폐암 소식은 전 국민 금연열풍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흡연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담배는 폐암 뿐 아니라 모든 암의 30%를 일으키며 치명적인 질병인 중풍,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 2, 3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암, 중풍, 심장병이니, 결국 흡연은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위험물질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의학적 위협은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최근 필자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흡연자들을 보아도

가장 금연을 많이 시도하고 성공률도 높은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암과 같은 건강문제 따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연도별, 연령별로 나열해 보면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 20년 전에 비하여 흡연율이 가장 현저히 감소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고 50대도 20% 정도 감소되었다. 이러한 흡연율의 감소추세는 40대는 훨씬 완만해지며 30대는 20년 전과 비교할 때 전혀 금연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흡연율이 급증하는 연령대는 역시 10대와 20대로 국내 금연운동이 청소년층에 맞추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남고생의 평균 흡연율은 24.8%, 여고생은 7.5%, 남중생은 6.0%, 여중생은 2.0%로 나타났다.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시기는 남학생이 고교 3학년으로 29.6%, 여학생이 고교 1학년으로 9.6%이었다. 고 3 남학생의 흡연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29.6% (2001년도)로 일본(91년) 26.2%, 미국(97년) 28.2%, 영국(94년) 20.5%

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청소년 흡연의 특별한 해독〉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흡연이 성인의 흡연에 비하여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청소년기의 흡연이 얼마나 해로울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아이들의 몸은 성인에 비하여 훨씬 연약하고 민감하다. 일단 폐의 크기부터가 성인보다 훨씬 작다. 청소년기에는 매년 5~10cm 이상으로 키가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매우 왕성한 세포분열이 일어난다. 상대적으로 작고 민감한 청소년의 폐 속에 4천여가지의 화학물질 먼지가 쏟아져 들어가서 쌓인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중에 현재까지 알려진 발암물질만 43가지가 넘는다. 그렇다고 중학생용 담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들도 어른의 담배를 피우니 그 해독이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통계적으로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데는 평균 25년 정도가 걸리며 폐암 환자의 90%는 흡연자이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폐암의 발생률을 현저히 높일 뿐 아니라 발생 시기도 훨씬 앞당기게 된다. 미국 의무총감의 보고에 의하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

자의 2.5배인데 비해서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 배에 달한다고 한다. 2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성인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수명단축을 8~10년 정도로 보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된다.

여고 1~2년때 흡연을 크게 증가

〈청소년기 흡연의 특징〉 필자는 2001년도에 천안지역 중고생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흡연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몇가지 특징적인 내용이 발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중1부터 점차적으로 흡연율이 증가하여 고3이 되면 최고조에 도달하는데 반하여 여학생은 중학생들의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가 고 1때 흡연율이 3배 이상 급증하고 고 2때 다시 좀 더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고 3학년의 흡연율은 여고 1, 2학년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남자가 어른이 되면 담배정도는 피워야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 탓인 것 같다. 여고 1, 2학년의 흡연율이 높고 3학년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여학생 흡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좌절과 염려를 보여준다. 즉, 중 3을 마치고 고교 진학시 실업계로 가게 되면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담배를 쉽게 접하게 되며 이러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취업을 앞두면 사회생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교육은 수시로 실시해야 하나 여학생의 경우는 특히 중 3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남녀 학생 모두 첫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연령대는 중학교 2학년이었으나 빠른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흡연을 시작한 학생도 5% 가량 되었다. 흡연예방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있다.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게 되고 이때 다른 아이들에게 담배를 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로부터 담배 한대를 권해 받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하는 찰나의 시간에 아이들은 대개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때 담배를 안 피우는 아빠를 둔 아이들은 그래도 흡연을 거절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는 것이다. 그토록 해로운 담배가 여러분 자신 뿐 아니라 사랑하는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이 유전된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조사 결과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흡연율은 비흡연자인 아빠를 둔 학생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 물론 흡연이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빠의 흡연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첫 담배를 배우는 주효 동기는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가 가장 많으며 주로 수학여행이나 노래방, 친구의 빈 집 등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된다. 전형적인 예는 10명의 친한 또래 학생중 한명만 흡연학생이 있다면 이들이 생일잔치 등을 이유로 노래방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창 분위기가 오르면 흡연학생이 담배를 피우

자녀들에게까지 유전된다니... 끔찍한 일 아닌가...

청소년 흡연은 범죄아닌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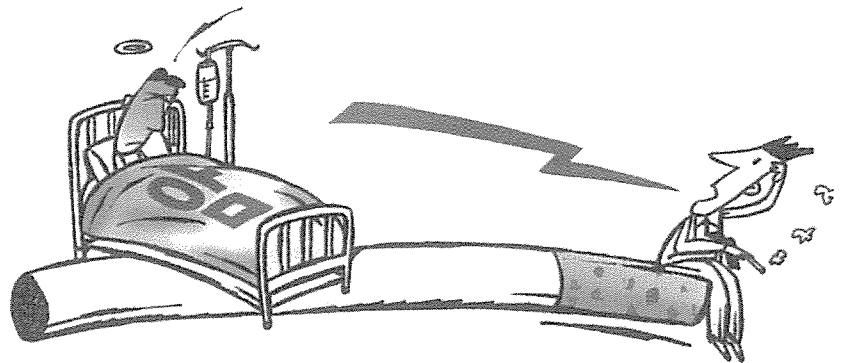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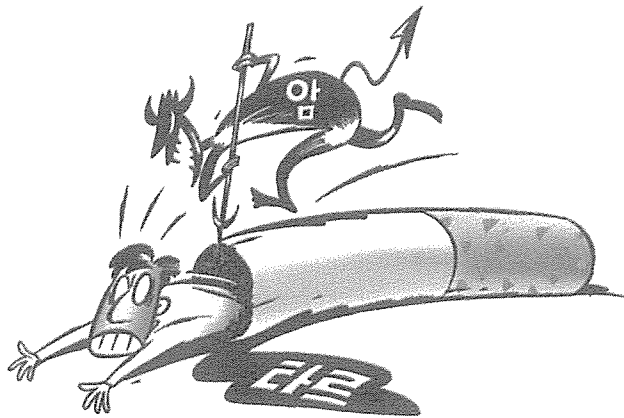
필자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사람의 성인으로써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많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비판적 보도가 부쩍 많아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치 세계에서 가장 버릇없는 아이들인양 여기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다. 그저 자조적인 소리로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어른도 무서워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것들.." 정도가 우리 어른들의 반응 아닌가?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피해자이지 절대로 범죄자가

아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운다.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는 우리 사회의 성인 흡연율이 지난 20여년간 2% 내외 감소하였을 뿐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어른들은 누구나 담배를 피운다.

가난한 노숙자로부터 억대 연봉의 고학력자에 이르기까지 담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국남자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고위직 간부들은 각종 스트레스 때문에, 노동자들은 삶이 고달파서 담배를 피운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흡연에 있어서만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따지고 보면 우리 세대의 어른들 역시 대한민국의 터무니없는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2001년도 국내 사망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전통적으로 늘 1위를 차지하던 위암을 제치고 사망원인 1위로 부상하였다.

폐암 환자 1백명이 있으면 그 중 90명이 흡연자일 정도로 흡연은 폐암의 강력한 원인이다. 그런데 담배를 배워 폐암에 걸리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현재 폐암으로 희생되는 4~50대 성인들이 처음 담배를 배운 시기를 보면 그들의 20대 초반, 군대에서 배운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담배를 처음 배우

는 청년들이나 심지어 담배를 권했던 정부조차 흡연이 건강에 이처럼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다. 필자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흡연자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처음 담배를 배울 때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시작했다고 고백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다. 친구나 선배의 권유로 쉽게 시작한 흡연이 어느새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이제는 간절히 끊고 싶어도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은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재임기간중 상당히 강력한 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윤을 나라살림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삼아왔다. 곰곰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의 심신 건강한 젊은이들을 군대에 강제로 불러모은 후(비실비실한 젊은이들은 군대에서 부르지도 않는다),

담배라는 마약을 이들에 한갑씩 공급하여 3년간 중독시킨 후 이후 평생동안 담배를 사 피우도록 한 셈이다. 그 결과로 국가 재정은 다소 튼튼해졌을지 모르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4~50대는 건강을 잃고 폐암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한 시대의 잘못된 정책은 당대의 성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모자라, 다음 세대에까지 그 파괴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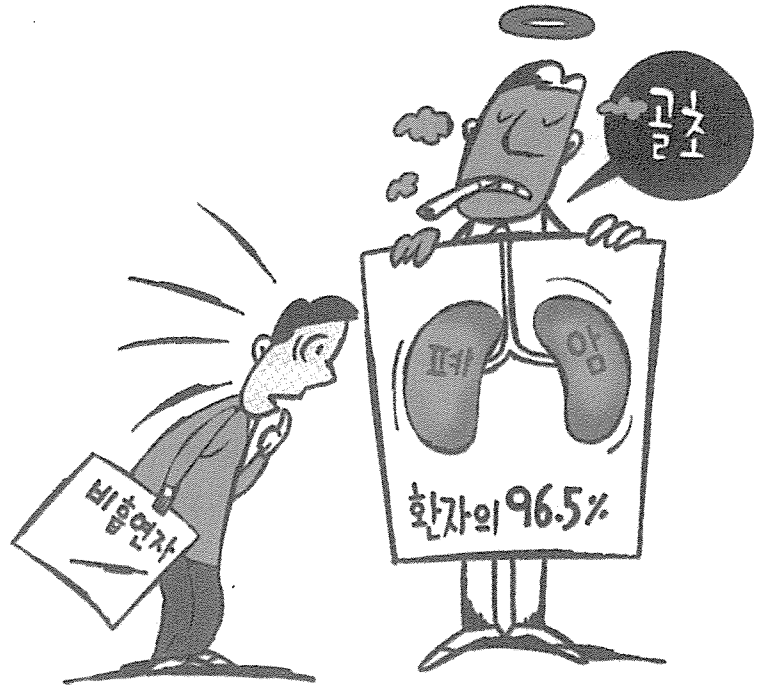
그런데, 흡연의 피해를 연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피해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비하면 그야말로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

람이 경험하는 흡연의 피해는 담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피웠는가에 좌우된다. 하루에 피우는 개비 수가 많을수록, 피운 년 수가 길수록 해독이 심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담배를 처음 배운 시기에 관한 것이다. 첫 담배를 15세 이전에 시작한 경우 20세 이후에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을 비롯한 흡연의 피해는 2~3배나 높아진다.

예컨대, 이렇게 일찍 흡연의 피해에 노출된 학생들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40대 초반에 폐암으로 쓰러지는 불행한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40대 초반이면 가정적으로 한창 기반을 잡아나가고 아이들이 커가며, 부모님을 돌보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한 집안의 가장들이 폐암으로 쓰러질 것을 생각하면 필자는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견딜 수가 없다. 아이들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한국의 부모들이 이런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과외비를 대고 있는데 그렇게 공들여 키운 아이들을 흡연의 폐해로 잃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필립 모리스나 BAT Korea, Japan Tobacco와 같은 다국적 담배회사들이 국내에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제공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들 외산 담배들은 매력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특히 청소년들을 그들의 미래의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청소년 흡연자들의 40%가 외산 담배를 피운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국내 도입 초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마치 청소년 금연운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식의 엉터리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지만, 담배회사의 금연운동을 진심으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중국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 학계가 힘을 합쳐 자국의 청소년들을 외산 담배로부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은 어떠한가?....

올들어 매스컴의 주도하에 사회 각

계에서 예년에 볼 수 없는 금연열풍이 불고 있다.

올해의 금연열풍이 이주일씨의 폐암 소식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부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운동을 시작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러한 열기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민성은 한번 한다면 하고마는 화끈한 면이 있지 않은가? 선진국들의 흡연율이 50%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수십년의 세월의 걸렸지만 지금의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이 기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른들이 먼저 금연을 결심하여 본을 보이고, 다국적 외산 담배회사의 마케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